

제5과 최고의 법

야고보서 말씀 묵상 그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최고의 법’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법치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법에 따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도 법치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 많은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최고의 법은 주님이 가르치신 것으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로써,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편견으로 차별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

성도의 신앙은 ‘관념적’이거나 ‘현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것입니다. 신앙을 관념화 하려는 것은 ‘삶의 구체적 실천의 부정’하려는 악한 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념이나 일반적 상식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우선이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강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1)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2-4)

→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당시에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해 자신을 꾸민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환대’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천대하는 것을 성경은 ‘악한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무려 20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어쩌면 그렇게도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듯합니다.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악한 생각’일까요?

그 이유로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함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사람의 악한 습성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보다 나은 사람과 못한 사람을 구별하여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나은 사람에게서는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아주 악한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10)

1)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근본적 이유 - ()

우선 야고보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성도들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첫째, ‘자격 없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차별할만한 자가 못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들을 차별하여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지 곧 홍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1-5)

둘째, ‘성도는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상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과 뜻이 우리의 삶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수 없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9)

→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6-7)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에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주님의 계명과 약속을 지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생명으로 여기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21)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20-21)

2)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실질적 이유 - (_____)

야고보는 ‘우리도 가난한 자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부요한 자, 특별히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자로 삼으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가난하다고 차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서 2:5)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자로 삼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6-29)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15-18)

→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즉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릴 상속은 ‘영원한 나라’의 상속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사회적 이유 - (_____)

이어서 야고보는 당시 사회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행한 악함들을 열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유하다는 이유로 그들은 환대하고 가난한 자를 천대한다면 어리석은 짓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서 2:6-7)

→ 당시 부유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했으며 무엇보다 ‘주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가진 자’들은 언제나 자기 멋대로입니다. 오늘날 ‘갑질’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기억합니다. 당시는 그런 악행이 더 심했습니다. 가진 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재물’과 ‘권력’으로 약자를 억압하고 불법을 정당화하며, 교회를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부요함’으로 인해 그들을 ‘환대’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2. ()

야고보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율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선언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서 2:8-9)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18)

야고보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두 계명 즉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법’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36-40)

그리고 이 ‘최고의 법’에 따라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할 수 없음’을 야고보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

오늘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것들을 적어 보세요.!!

[illegible]